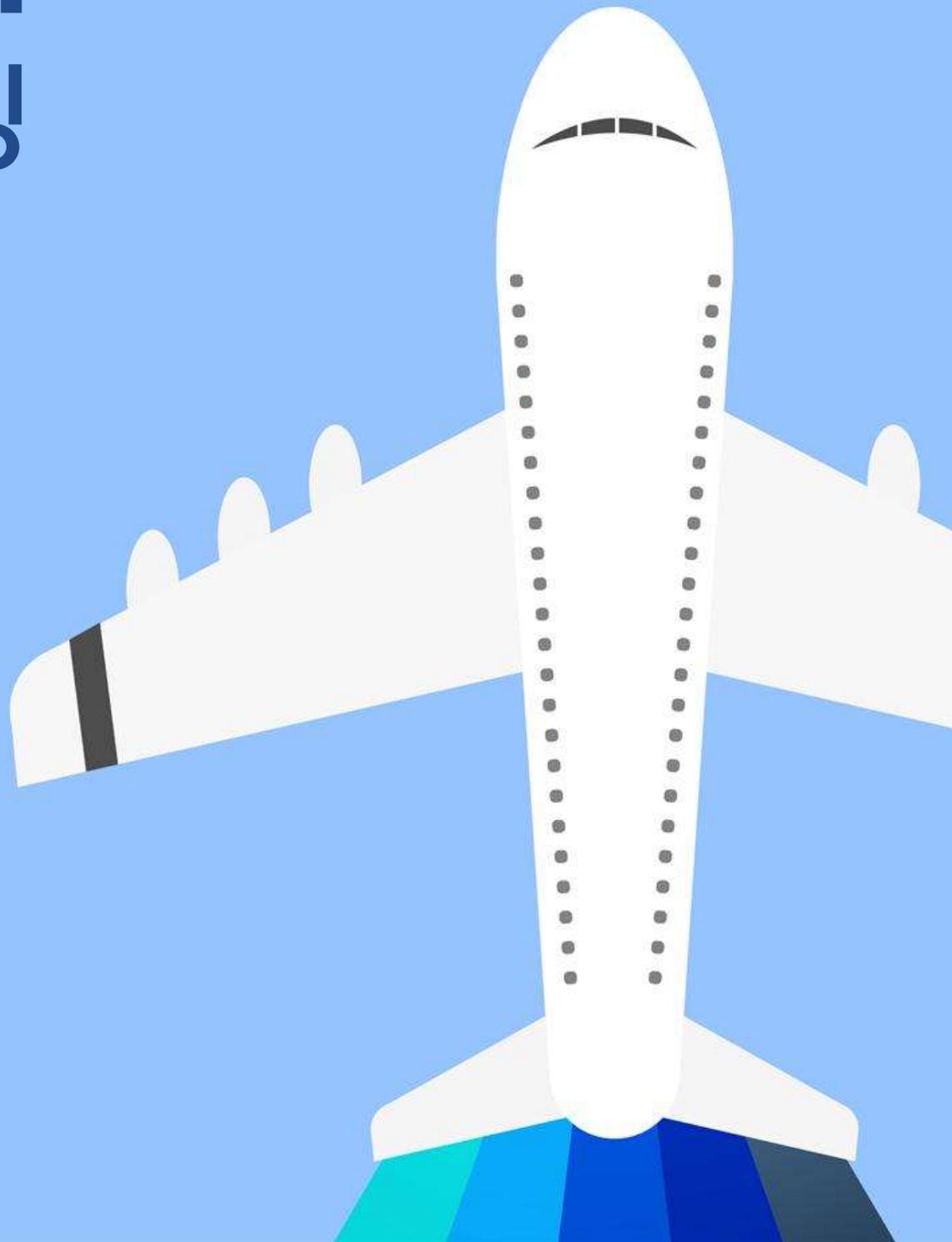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중국 베이징

Beijing



목 차

I. 국가개요	2
II. 경제 동향	5
III. 한·중 교류현황	15
IV. 베이징 동향	20
V.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31
VI. 무역관 오시는 방법	37
VII. 현지 유관기관 및 한식당 안내	39
VIII. 무역관 직원 연락처	42



위치 및
면적

▷ 위치: 아시아 대륙 동부와 태평양 서안

▷ 면적: 960만㎢ (한반도의 44배, 세계 4위)

* 육지 국경선 연장은 총 2만 2,800km로 북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3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국경이 접해있음

1. 국가개요

1. 국가 개요

국 명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 (영문)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건국일	1949년 10월 1일 * 중국 공산당 창립 : 1921.7.1				
국가지도자	<table border="0"> <tr> <td></td> <td>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 주석 (‘12년 11월 선출) 국가 주석(‘13년 3월 임명)</td> <td></td> <td>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13년 3월 임명)</td> </tr> </table>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 주석 (‘12년 11월 선출) 국가 주석(‘13년 3월 임명)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13년 3월 임명)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 주석 (‘12년 11월 선출) 국가 주석(‘13년 3월 임명)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13년 3월 임명)		
수 도	베이징(北京, Beijing) ▷ 총 면적 16,411km ² 로 서울(605km ²)의 약 27배				
인 구	14억 1178만 명(2020년 말 기준, 인구수 세계 1위) 도시 9억 199만 명(63.9%), 농촌 5억 979만 명(36.1%)				
민 족	56개 민족 ▷ 한족(91.1%) 및 55개 소수민족(8.9%)				
언 어	漢語(Chinese) [※표준어: 普通話(Mandarin)] * 한어(漢語)는 표준어와 방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오성홍기(五星紅旗)

혁명(적색)의 기치하에 중국공산당(큰별)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소부르주아·민족부르주아 계급(4개의 작은별) 등 모든 중화인민이 단결 하자는 의미



중국 휘장

중앙 휘장을 둘러싼 쌀과 보리는 농민, 아래의 톱니바퀴는 공장노동자, 별 아래의 건축물은 자금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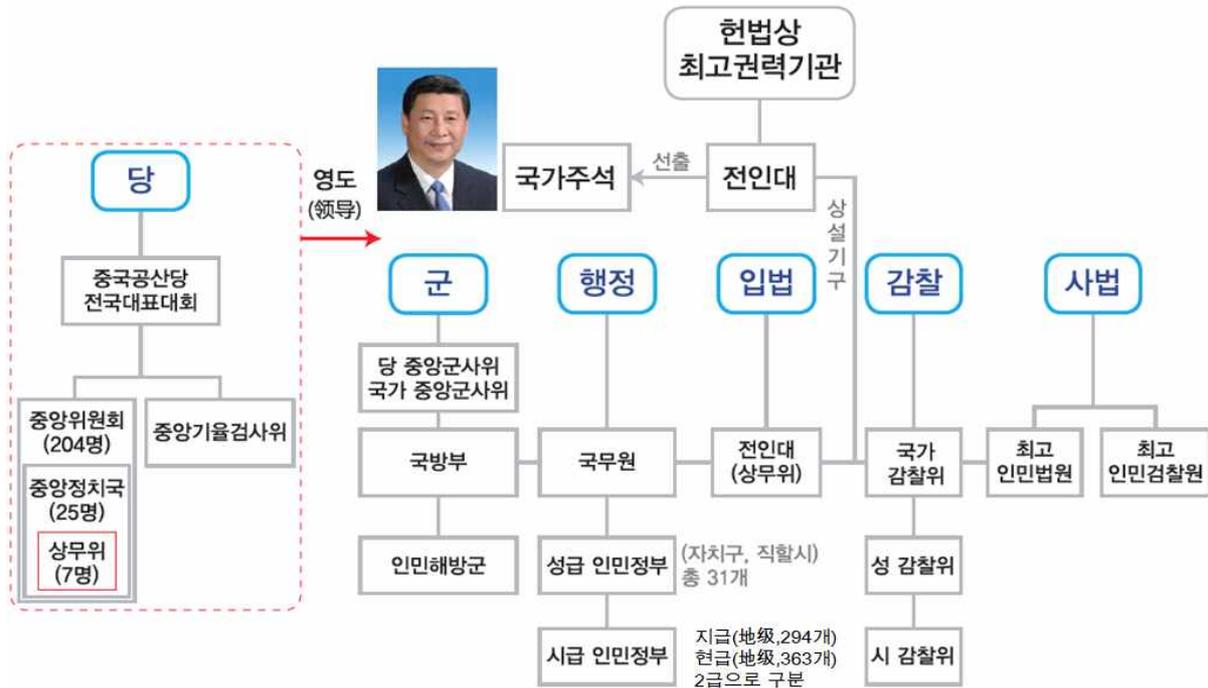


공산당기

붉은 기는 혁명, 노란색은 광명, 망치와 낫은 각각 노동자와 농민을 상징 중국공산당은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의미

2. 정치 체제

- 공산당이 군, 전인대(입법기관), 국무원(행정부), 국가감찰위(감찰기관)과 사법기관을 통제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 약 9천만 명의 중공 당원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 피라미드 정점에 위치
 - 그중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국가원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 최고 통솔자) 등 모든 직위를 맡으며 당·정·군 3대 권력을 장악



시진핑(习近平)

당 총서기·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정치국 상무위

* 現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한 7인으로 구성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리잔수(栗战书)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정협 주석



왕후닝(王沪宁)
당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赵乐际)
중앙기율위 서기



한정(韩正)
국무원 부총리

3. 행정 체계

- 국무원은 중국 최고 행정기구 (우리나라 행정부에 해당)
- 2018년 3월, 20년 만에 최대폭의 정부 기구 개편 통해 장관급 부처 총 26개로 통폐합

〈중국 국무원 조직도〉



총리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한정(韩正)
(개혁·재정)



류허(刘鹤)
(금융·통상·과학기술)



후춘화(胡春华)
(삼농·빈곤퇴치)



쑤춘란(孙春兰)
(보건·교육·체육)

국무위원



웨이펑허(魏凤和)
(국방부 부장 겸임)



왕용(王勇)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 겸임)



샤오제(肖捷)
(비서장 겸임)



자오커즈(赵克志)
(공안부 부장 겸임)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II. 경제 동향

1. 중국 경제현황

□ GDP

(2020년)

- 코로나 팬데믹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달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점으로 경제성장 속도 둔화, 2010년 이후 10년째 하락
 - 2014년 말 시진핑 주석의 뉴노멀 공식 선언 이후 2015년 7% 이하로 감속
 -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 30년 만에 최저치 (2.3%) 기록했으나 GDP 규모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 돌파

〈중국 GDP 추이〉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2021년)

-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고후저(前高後低: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順), 연간 8~9% 성장 전망
 - 특히 1분기 내외수 회복에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18.3% 고성장 실현
 - * 2020Q1 락다운(바이러스 확산 막기 위한 봉쇄조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6.8%)
 - 중국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 이상'으로 설정, 주요기관 8~9% 예상
 - * 中 2021 성장률 전망(%) : IMF 8.1%, 세계은행 7.9%, 사회과학원 7.8%, 노무라증권 9%
 - 2020~2021년 통합시 중국경제 성장률 5.5% 내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산업 구조

(코로나 이전)

- 산업 성장의 축, 전통 제조업→ 서비스업,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
- 산업구조 고도화 : 신흥전략산업, 첨단제조업 집중 육성
 - * e절약/환경보호, 차세대IT,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디지털 혁신, 현대 서비스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2020년)

- 산발적 감염사태가 잇따르며 서비스업 회복세 주춤, 대면 서비스업은 코로나 직격탄
- '언택트(非대면)'가 비즈니스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非대면 서비스업 급부상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2021년)

- 내수확대·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투 트랙으로 하는 '내수위주,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의 경제구도 하에 4新경제(신기술·신산업·신업체·신모델)와 혁신첨단제조업 육성에 주력
- 언택트 비즈니스, 디지털 경제 등 新사업·비즈니스 모델 발전 촉진, 소비진작 지속 추진
- 핵심부품·소재·기술의 자국화 및 완전한 산업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 총동원

□ **교역**

(2019년)

- 교역액 4조 5,665억 달러 (0.7% ↓)
- (수출) 수출 2조 4,979억 달러 (0.3% ↑)

* (국가별)

	1위 미국	2위 홍콩	3위 일본	4위 한국	5위 베트남
					
(비중, 증감율: %)	16.7, -12.5	11.2, -7.6	5.7, -2.6	4.4, +1.8	3.9, +17.1

* (품목) 무선 전화기, 전기제품, 석유제품, 조명기기 등

- (수입) 수입 2조 686억 달러 (1.9% ↓)

* (국가별)

	1위 한국	2위 대만	3위 일본	4위 미국	5위 호주
					
(비중, 증감율: %)	8.4, -15.1	8.4, -2.5	8.3, -4.8	5.9, -20.4	5.8, +16.5

* (품목) 집적회로, 원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첨단기술 제품 등

(2020년)

- 코로나 악재에도 중국 교역 플러스 성장, 무역수지 흑자(5371억 달러) 2015년 이후 최대 규모 기록
- 마스크 수요 급증, 하반기 내외수 회복에 따라 중국 수출 6월부터 7개월 간 연속 신장세

- 교역액 4조 6,576억 달러 (2% ↑)
- (수출) 수출 2조 5,974억 달러 (4.0% ↑)

* (국가별)

	1위 미국	2위 홍콩	3위 일본	4위 베트남	5위 한국
					
(비중, 증감율: %)	17.4, +8.2	10.6, -1.5	5.5, -0.4	4.4, +16.5	4.4, +1.9

* (품목) 무선 전화기, 전기제품, 마스크,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

- (수입) 수입 2조 603억 달러 (0.4% ↓)

* (국가별)

	1위 대만	2위 일본	3위 한국	4위 미국	5위 호주
					
(비중, 증감율: %)	9.8, +16.9	8.6, +2.7	8.4, -0.03	6.6, +10.4	5.6, -4.0

* (품목) 집적회로, 원유, 철광석, 대두, 자동차 및 부품, 첨단기술 제품 등

□ FDI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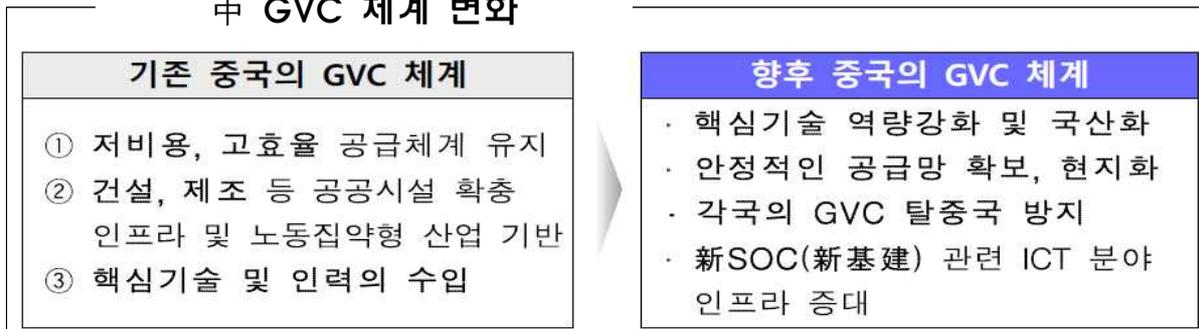
- 외국인직접투자액 1,381억 달러 (2.3% ↑)
- 對하이테크산업 투자 전년대비 21.7% 증가, 전체 FDI에서 27.7% 차지
- * (국가별)

	1위 홍콩	2위 싱가포르	3위 한국	4위 일본	5위 미국
(비중, 증감율: %)	 69.7, +7.1	 5.5, +45.7	 4.0, +18.7	 2.7, -2.0	 2.0, -0.1

(2020년)

- 외국인직접투자액 1,444 억 달러(4.5% ↑), 세계 최대 외자유입국으로 부상
- 투자액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938개, 전년 대비 12.5% 증가
- 對하이테크산업 투자 전년대비 11.4% 증가, 전체 FDI에서 29.6% 차지
- 외국인투자 법제도 정비와 경영환경개선 따라 안정적 성장세 유지
- 한편,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대비 필요, GVC 재편을 위한 “脫중국(니어쇼어링, 리쇼어링) 및 “차이나 플러스 원” 등 외자기업 빠른 움직임

中 GVC 체계 변화



□ ODI

(2019년)

- 대외투자규모 1,369억 달러(4.3% ↓), 3년 연속 하락세
- '16년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자본 유출 통제 강화와 선진국의 ‘차이나머니’ 견제 결과
- * (국가별)

	1위 홍콩	2위 영국 버진아일랜드	3위 싱가포르	4위 네덜란드	對韓 투자
(비중, 증감율: %)	 66.1, +4.2	 6.3, +21.4	 3.5, -24.6	 2.8, +27.4	 5.6억 달러,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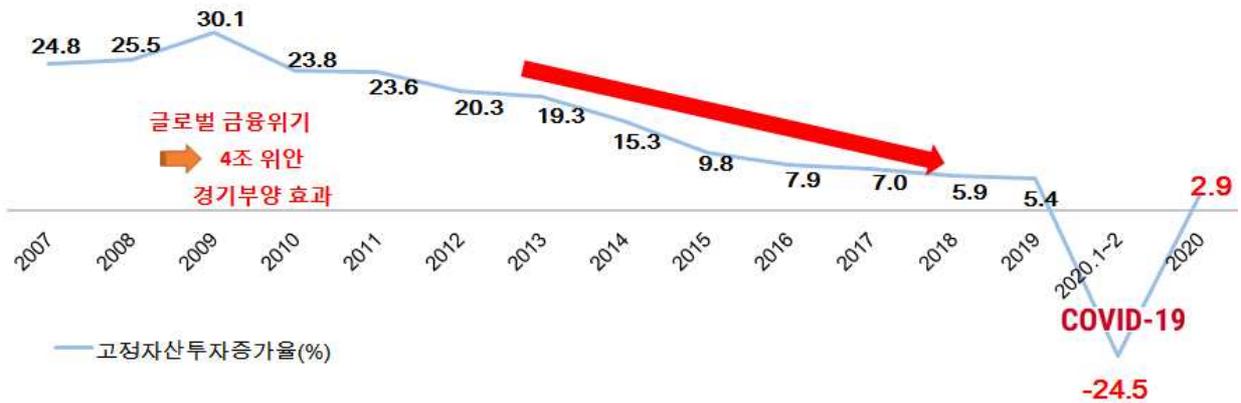
* (분야 및 비중 %) 임대·비즈니스 서비스(30.6), 제조업(14.8), 금융(14.6), 도소매(14.2), 정보통신서비스(4)

□ 투자

(2019년)

-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위축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둔화 (5.4% ↓)
- 전체 투자를 견인하던 인프라 투자 지속 둔화 ('17) 14.9% → ('18) 1.8% → ('19) 3.3%
- 기업 과잉생산에 대한 구조조정, 시장불황으로 설비투자 증가율도 빠르게 하락

<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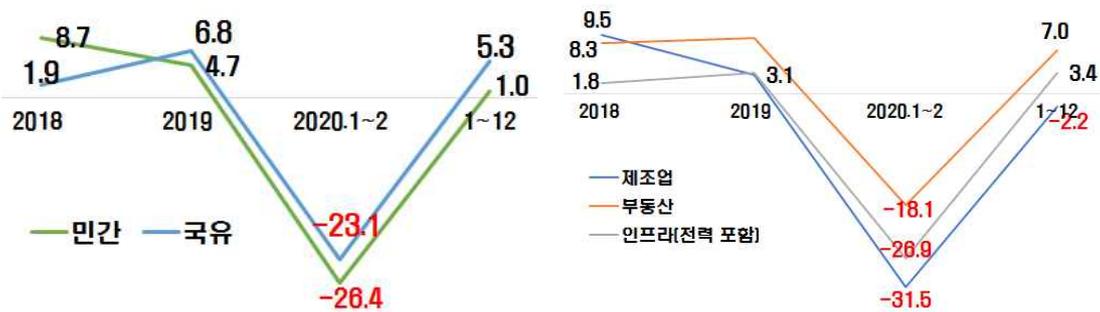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2020년)

- 코로나 여파로 2월 -24.5% 저점 찍었으나 국유부문과 부동산 투자에 힘입어 'V'자 반등 실현
- 민간 부문과 제조업 투자 회복세 완만, 특히 제조업 투자는 연말까지 마이너스 행진

<국유와 민간 분야 투자 동향(좌), 분야별 투자 동향(우)>



자료원: wind

(2021년)

- 내수확대, 자립형 공급망 구축, 탄소중립 등 핵심과제 실행에 따라 “양신일중(兩新一重)*”, 첨단제조업, 친환경 분야 투자 고성장세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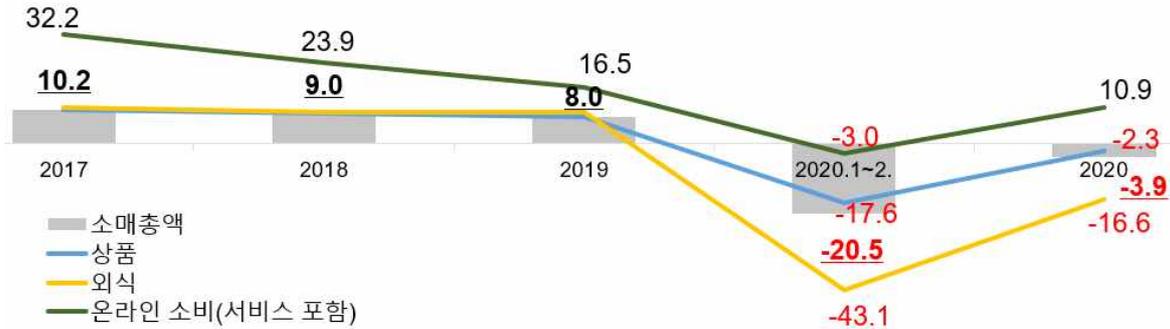
* 5G, AI 등 첨단기술 중심의 新SOC, 신형 도시화와 철도/도로/수리시설 등 대중형 프로젝트

□ 소비

(2019년)

- 소비시장 규모 41조 1,649억 위안 (8% ↑)
- (업종별) 요식업 9.4%↑, 상품소매업 7.9%↑, (지역별) 도시 7.9%↑, 농촌 9.0%↑

< 중국 소비 증감률 >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2020년)

- 코로나 충격으로 소비심리 위축되며 역성장 (소매판매 39조 1,981억 위안, 전년비 3.9% ↓)
- (업종별) 요식업 16.6%↓, 상품소매업 2.3%↓, (지역별) 도시 4%↓, 농촌 3.2%↓
- 온라인 소비 두 자릿수(+10.9%) 증가, 전체 소비에서 비중(24.9%)이 25%에 육박
- * 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 쇼핑판매 비중 : ('08) 1.1% → ('19) 20.7% → ('20) 24.9%

(2021년)

- 코로나 안정세, 정부 소비진작책에 힘입어 'H·O·M·E' 중심으로 회복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中 소비트렌드: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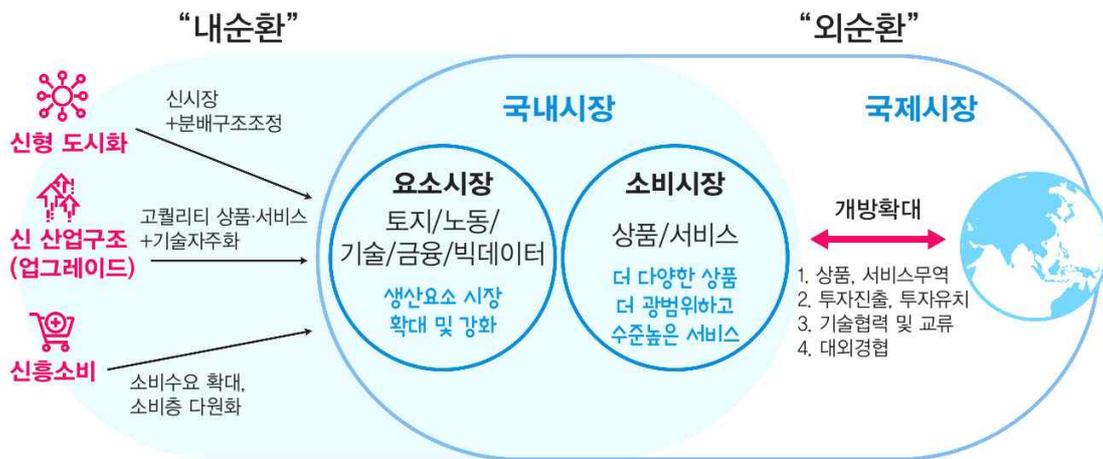


2. 중국 주요 정책

① 新 경제구도_쌍순환(雙循環)

-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
 - (목표) 과거 수출·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중심의 성장 및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대전환
 - (핵심) 국내 대순환에 초점, 주로 소비시장, 요소시장의 업그레이드 및 신형도시화·신산업구조 구축 등을 통한 내수시장의 확대 및 선순환 구조 형성

〈국내대순환 위주의 쌍순환 구도〉



자료원 : 中信證券

-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위해 내수진작과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주력 예상

〈국내대순환 경제구도 구축으로 영향 받을 산업〉

정책방향	분야	세부 품목/분야
수출→내수로 전환	소비재	가전, 기계전자, 경공업품
내수 확대	서비스업	면세점, 관광업, 외식업, 영화, 게임, 항공, 호텔
인프라 투자 확대	양신일중 (兩新一重)	(兩新) 신SOC, 신형도시화, (一重)대형수리시설, 교통인프라
수입 의존도 축소/ 공급망 자국화	에너지/자원 핵심첨단산업	반도체, 첨단설비/소재, 전기차 배터리, 철광석

자료원 : 招商證券, KOTRA 베이징무역관

- 쌍순환 전략은 新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전환점으로 작용 전망
 - 2021년의 경제운영 방향이자 중장기적 정책 노선으로 자리매김

② 중국판 뉴딜_新SOC

- 新SOC(新基建), '신형 인프라 건설'의 줄임말로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 2018.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서 최초 언급, 2020년 양회 정부업무 보고에 등장
 - 1) 5G망, 2) 특고압, 2) 신에너지차 충전소, 4) 고속철도/궤도교통, 5) 빅데이터센터, 6) AI, 7) 산업인터넷 등 7대 분야 포함
 - 7대 신인프라 구축은 5G 기지국설비, 특고압 장비제조, 충전소 관련 신소재, 고속철도, 빅데이터 서버, 딥러닝, 센서, 디지털/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등 품목 수요가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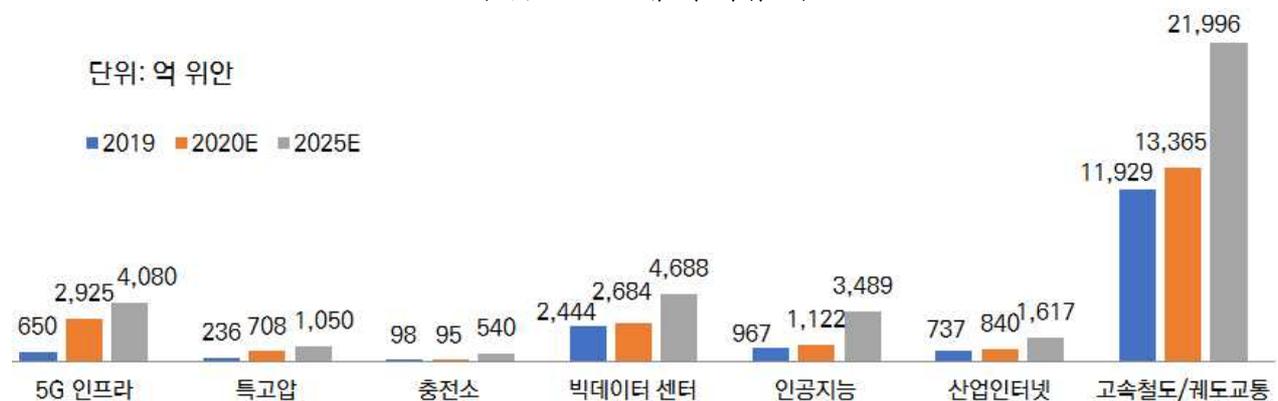
〈 新SOC 7대 분야 〉

구분	세부 품목
5G 인프라	- 네트워크 설계 및 운영 서비스 - 기지국 설비 및 부품(칩, 케이블, 안테나, 서버 등) - 단말기 및 부품(정보처리기기, 칩, 작업시스템,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특고압	- 직류/교류 특고압 장비(GIS, 변압기, 리액터, 변류기 등) - 디자인 및 구축
충전소	- 충전소 소재/부품(변성수지, SMC 복합소재, 케이블 소재, 알루미늄합금)
고속철도/궤도교통	- 장비(철도, 고속철도)
빅데이터 센터	- 설비(서버) - ICT 솔루션
인공지능(AI)	- 반도체(AI 칩, 센서, 서버) - ICT 솔루션(기계학습, 딥러닝, 의미인식, 컴퓨터 비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인터넷	- 플랫폼(클라우드, 빅데이터), 디지털/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설비

자료원 : CCTV, WIND, 光大证券, 赛迪智库

-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2020년 7대 분야의 투자규모 2~3조 위안 도달 예상

〈 新SOC 7대 투자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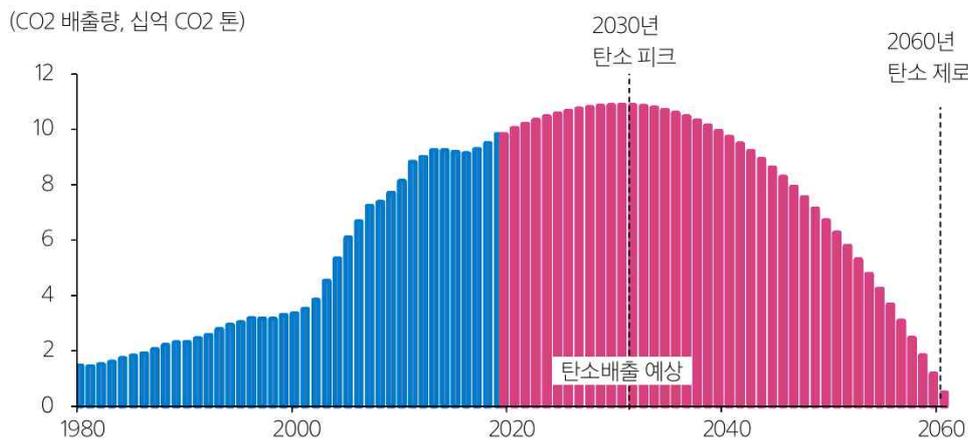


자료원 : 赛迪智库

③ 2060 탄소중립(碳中和)

- 중국,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찍은 후 206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
 - * 탄소중립 :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으로 상쇄해 실질적인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
 - 제14차 5개년 계획 요강(2021~2025)에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연도를 제시하는 등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주도국으로 이미지 전환 도모
 - * 중국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 1위 (전 세계의 28%로 美의 2배, EU의 3배, 印의 4.5배)

〈 중국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 〉



자료원 : Wind, 삼성증권

- 녹색성장 전략 본격화에 따라 친환경산업 발전 가속화 전망
 - 신에너지차, 오염물 배출 저감 시스템, 녹색 유통(스마트 배송 시스템) 등 유망

〈 중국 친환경 밸류체인 〉



자료원 : 삼성증권

④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총 15개국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 FTA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통합
 - ASEAN 10개국 + 韓·中·日 + 호주 + 뉴질랜드 등, 2020.11.15 최종 타결 및 서명

〈 RCEP의 세계 경제 비중 및 중국 비중 〉

-	RCEP의 글로벌 비중(%)	RCEP내 중국 비중(%)
국가 수(개국)	15	-
경제 규모(%)	29	81.9
인구(%)	30	62.2
외국인 직접투자(%)	27	36.1
수출(%)	29	36.3
상품	29	43.9
서비스	30	13.0
수입(%)	25	40.9
상품	27	41.4
서비스	24	39.0
수출입(%)	54	38.4

자료원 : Worldbank, Wind, CITIC Securities (수출, 수입, 수출입은 2018년 기준, 기타는 2019년 기준)

-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 효과 기대
 - 新 산업체인 구축,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강화
 - * (기존) [韓·대만] 일반 부품 → [中] 조립·생산한 저부가가치 소비재 → [선진국]
 - * (향후) [韓·대만] 일반 부품 → [中] 생산한 일반 부품 → [동남아] 저부가가치 소비재 생산
[韓·대만] 핵심 부품 → [中] 생산한 중부가가치 소비재 → [선진국]
 - ‘쌍순환’ 정책의 안정적 대외여건 마련(* 對 선진국 수출 의존도(‘19년 33.9%) 축소, 경제적 우군 확보)

〈 RCEP 체결의 對중국 경제 효과 〉



자료원 : CITIC Securities

III. 한·중 교류현황

1. 외교

- 1990. 11. 30 주 베이징 대표처 창설팀(KOTRA) 베이징 도착
- 1991. 1. 30 주 베이징 무역대표부 개설, KOTRA 주 베이징 대표처 설립
- 1991. 4.8~15 KOTRA 베이징 국제박람회 참가시, 중국은 ‘한국’ 국호 및 태극기 사용 불허
- 1992. 1월 중국측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모든 전람회에서 한국의 정식 국호, 국기 및 국가문장 사용 허가방침 통보
- 1992. 2월 한중 무역협정 발효
- 1992. 8. 24 수교

1992~1997

선린우호 관계

- 1992. 9월 노태우 대통령 한국 국가원수로 첫 중국 방문
- 1993. 3월 김영삼 대통령 방중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중관세방지협정·문화협정 체결 등 합의)

1998~2002

협력적 동반자 관계

- 1998. 11월 김대중 대통령 방중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하나의 중국’ 재확인)
- 2000. 6월 한국,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 관세율 30%→315%로 인상
- 7월 중국, 한국산 휴대전화·폴리에틸렌 수입 잠정 중단
한중 ‘마늘 협상안’ 서명

2003~2007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 2003.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 2003년 말 중국,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 2005.11월 후진타오 주석 방한(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지 재천명)

2008~2012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2008.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합의)
- 2008. 8월 후진타오 주석 방한(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체적 추진 방안 합의)
- 2010년 말 한국, 대중국 수출액 1천억 달러 돌파
- 2012. 1월 이명박 대통령 국민 방중

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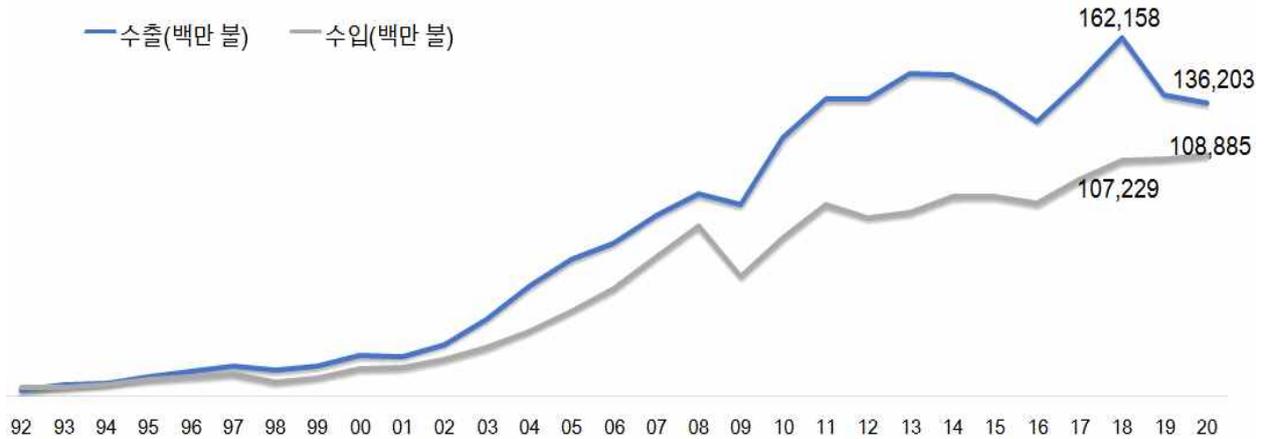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 2013.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한·중 미래비전 공동 성명’ 채택,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 합의)
- 2014. 7월 시진핑 주석 방한(‘한·중 공동 성명’ 채택)
- 2015. 9월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한차원 높은 발전 계기 마련)
- 2015.12.20 한중 FTA 공식 발효
- 2016. 7월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
- 2017.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2. 무역

■ 中은 韓의 최대 교역국(24.6%), 최대 수출국(25.9%), 최대 수입국(23.3%) (*2020년 기준)

〈 한국의 對中 수출입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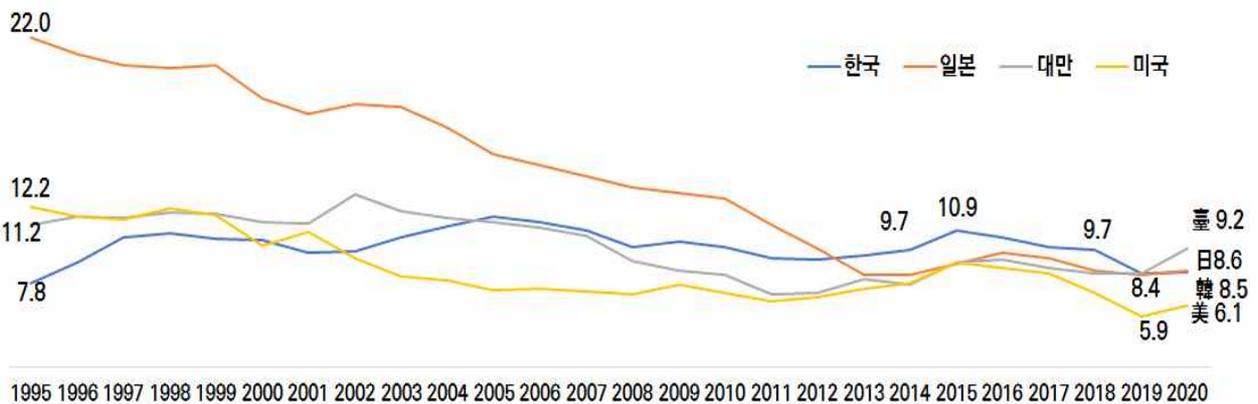


자료원 : 韓 관세청

■ 韓 연속 7년(2013~2019)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했으나 2020년 3위로 하락

- 韓은 中의 3대 교역국(6.2%, 美-日-韓), 5대 수출국(4.4%, 美-홍콩-日-베트남-韓) (*2020년 기준)
- 2013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점유율 1위 차지한 이래 2019년까지 중국 최대 수입대상국 유지
- 2020년 중국수입시장점유율 하락, 대만(9.2%), 일본(8.6%)에 3위(韓 8.5%)에 랭킹

〈 국가별 중국 수입시장 순위 및 점유율(%) 〉



자료원 : 中 海관총서

□ 수출(韓→中)

(2019년) (1,362억 달러, 16% ↓)

- 미중무역분쟁, 중국 경기둔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마이너스 성장
 - 대중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석유화학·정유제품은 글로벌 업황부진으로 수출단가 급락
- 자본재, 원자재 등 원부자재 수출이 높은 비중 차지, 소비재 저조
 - 집적회로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의 1, 2위 품목 유지

성질별	10대 품목 (MTI 3단위, 비중 %)																			
<table border="0"> <tr> <td>자본재</td> <td></td> <td>62.6%</td> </tr> <tr> <td>원자재</td> <td></td> <td>32.6%</td> </tr> <tr> <td>소비재</td> <td></td> <td>4.8%</td> </tr> </table>	자본재		62.6%	원자재		32.6%	소비재		4.8%	<table border="0"> <tr> <td>①반도체(27.2)</td> <td>⑥광학기기(2.6)</td> </tr> <tr> <td>②평판디스플레이(6.7)</td> <td>⑦기초유분(2.4)</td> </tr> <tr> <td>③석유제품(5.6)</td> <td>⑧컴퓨터(2.3)</td> </tr> <tr> <td>④합성수지(5.2)</td> <td>⑨화장품(2.3)</td> </tr> <tr> <td>⑤석유화학중간원료(4.3)</td> <td>⑩무선통신기기(2.1)</td> </tr> </table>	①반도체(27.2)	⑥광학기기(2.6)	②평판디스플레이(6.7)	⑦기초유분(2.4)	③석유제품(5.6)	⑧컴퓨터(2.3)	④합성수지(5.2)	⑨화장품(2.3)	⑤석유화학중간원료(4.3)	⑩무선통신기기(2.1)
자본재		62.6%																		
원자재		32.6%																		
소비재		4.8%																		
①반도체(27.2)	⑥광학기기(2.6)																			
②평판디스플레이(6.7)	⑦기초유분(2.4)																			
③석유제품(5.6)	⑧컴퓨터(2.3)																			
④합성수지(5.2)	⑨화장품(2.3)																			
⑤석유화학중간원료(4.3)	⑩무선통신기기(2.1)																			

자료원 : 관세청, KITA

(2020년) (1,326억 달러, 2.7% ↓)

- 코로나19 여파로 연초 급위축됐으나 중국 경기회복에 따라 하반기 뚜렷한 회복세
 - 석유화학, 철강 등 인프라 관련 품목과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언택트 비즈니스 관련 제품 수출 호조
 - 마스크, 의류, 화장품 등 품목의 대중수출 호황에 따라 소비재 비중 소폭 상승

성질별	10대 품목 (MTI 3단위, 비중 %)																			
<table border="0"> <tr> <td>자본재</td> <td></td> <td>63.4%</td> </tr> <tr> <td>원자재</td> <td></td> <td>30.9%</td> </tr> <tr> <td>소비재</td> <td></td> <td>5.7%</td> </tr> </table>	자본재		63.4%	원자재		30.9%	소비재		5.7%	<table border="0"> <tr> <td>①반도체(30.1)</td> <td>⑥ 컴퓨터(3.1)</td> </tr> <tr> <td>②합성수지(5.7)</td> <td>⑦ 화장품(2.9)</td> </tr> <tr> <td>③평판디스플레이(5.2)</td> <td>⑧반도체제조장비(2.7)</td> </tr> <tr> <td>④석유제품(4.9)</td> <td>⑨석유화학중간원료(2.6)</td> </tr> <tr> <td>⑤광학기기(3.2)</td> <td>⑩무선통신기기(2.3)</td> </tr> </table>	①반도체(30.1)	⑥ 컴퓨터(3.1)	②합성수지(5.7)	⑦ 화장품(2.9)	③평판디스플레이(5.2)	⑧반도체제조장비(2.7)	④석유제품(4.9)	⑨석유화학중간원료(2.6)	⑤광학기기(3.2)	⑩무선통신기기(2.3)
자본재		63.4%																		
원자재		30.9%																		
소비재		5.7%																		
①반도체(30.1)	⑥ 컴퓨터(3.1)																			
②합성수지(5.7)	⑦ 화장품(2.9)																			
③평판디스플레이(5.2)	⑧반도체제조장비(2.7)																			
④석유제품(4.9)	⑨석유화학중간원료(2.6)																			
⑤광학기기(3.2)	⑩무선통신기기(2.3)																			

자료원 : 관세청, KITA

□ 수입(中→韓)

(2019년) (1,072억 달러, 0.7% ↑)

-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 2019년 중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1.3%
- 자본재(55.9%), 원자재(25.6%)가 높은 비중 차지
 - 한국의 대중 수출, 수입품목이 상당수 일치→교역구조가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 내 교역으로 전환 시사

성질별	10대 품목 (MTI 3단위, 비중 %)
자본재 55.9%	①반도체(17.1) ⑥의류(3.4) ②컴퓨터(6.4) ⑦철강판(3.2) ③무선통신기기(5.7) ⑧평판디스플레이(2.4) ④정밀화학원료(5.1) ⑨자동차부품(1.5) ⑤산업용 전기기기(3.6) ⑩가구(1.4)
원자재 25.6%	
소비재 18.5%	

자료원 : 관세청, KITA

(2020년) (1,089억 달러, 1.5% ↑)

- 국내경제의 코로나 충격, 중국 락다운 영향으로 상반기 급락했으나 하반기 플러스 전환
 - 반도체(+2.5%), 무선통신기기(+3.3%) 등 품목은 소폭 증가한데 반해 컴퓨터(+17.1%) 등 언택트 비즈니스 품목 두 자릿수 증가세
 - 의류(△17.4%), 철강판(△26.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6.4%) 등 품목 큰 폭으로 감소

성질별	10대 품목 (MTI 3단위, 비중 %)
자본재 58.5%	①반도체(17.2) ⑥의류(2.8) ②컴퓨터(7.3) ⑦철강판(2.3) ③무선통신기기(5.8) ⑧건전지 및 축전지(1.7) ④정밀화학원료(4.9) ⑨가구(1.6) ⑤산업용 전기기기(3.6) ⑩ 자동차부품 (1.6)
원자재 23.2%	
소비재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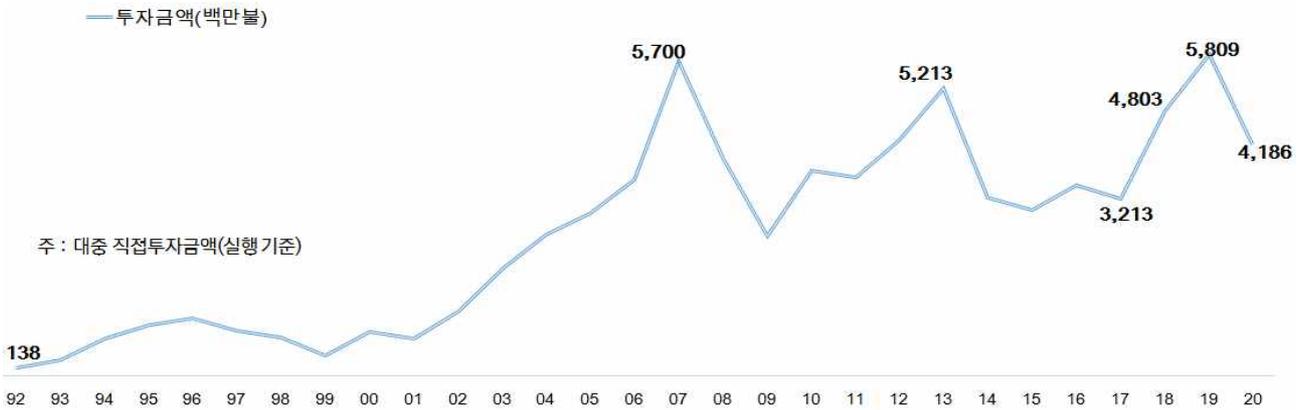
자료원 : 관세청, KITA

3. 투자

□ 韓→中 투자 (2020년 41.9억 달러, 27.9% ↓)

- 韓→中 누적투자액(2020년 기준) 752억 달러
- 우리나라 ODI(실행액 기준)의 7.6% 차지, 미국, 케이만 군도에 이어 3위(2020년 기준)
- * (지역별) 2020년 금액기준 對장쑤(26.5억 달러) 투자 전체 대중투자의 63.2% 비중 차지
신규법인기준 상하이(63개), 산둥(52개), 장쑤(41개), 광둥(20개), 베이징(12개) 順
- * (업종별) 제조업이 전체 투자액의 87.8%로 절대 비중 차지, 그 뒤는 도소매(6.2%), 금융보험업(1.2%) 順

〈 한국의 대중국 투자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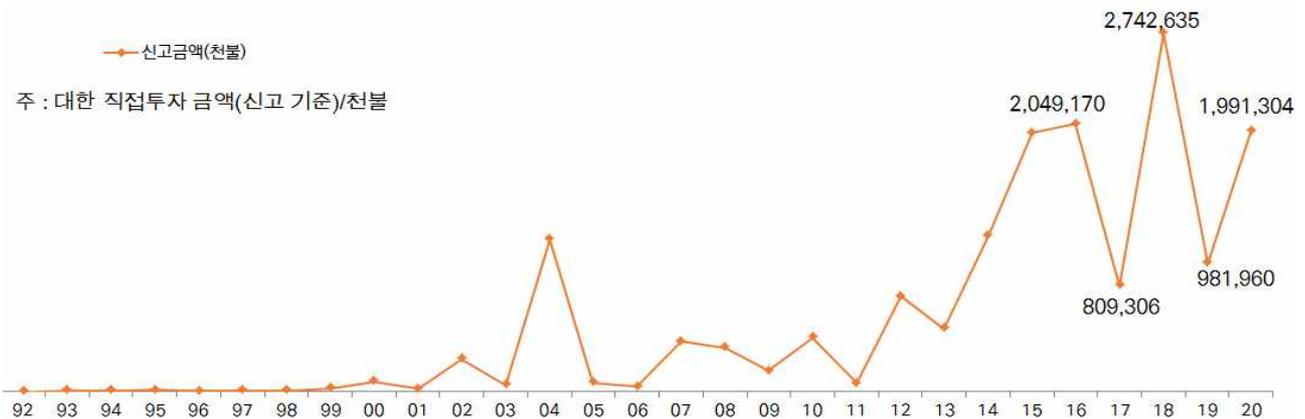


자료원 : 한국수출입 은행

□ 中→韓 투자 (2020년 19.9억 달러, 102.8% ↑)

- 2019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 10억 달러 미만으로 급락했다가 2020년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다시 반등

〈 중국의 대한국 투자동향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IV. 베이징 동향

1. 한눈에 보는 베이징



14억 인구의 수도

- ☞ 약칭 경(京), 4대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중 하나
-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시 수도로 확정
- ☞ 당, 정, 군 중앙수뇌부 소재지
- ☞ 총면적 16,411km² *서울(605km²)의 약 27배



5천여 년 역사의 古都

- ☞ 1,000여 년간 중국 요, 금, 원, 명, 청 등 왕조의 수도
- ☞ 고궁, 이화원 등 세계 최대 규모 역사유적지 보유



2천만 명 인구의 글로벌 초메가시티

- ☞ 인구 2,189만 명 (* 상하이 2,487만 명, 충칭 3,205만 명) (2020년 말 기준)
- ☞ 3,961개 지역본부 소재지 (2019년 말 기준) (세계 500대 기업 중 56개사, 중국 500대 기업 중 100개사)
- ☞ 2014년부터 6년 연속 “세계 500대 기업 지역본부 최다 도시”
- ☞ 중국 자동차 보유량 1위 (650만 대 돌파, 2020년)

※ 베이징의 별칭...디두(帝都, 제국의 도시): 1000여 년 간 5대 왕조의 도성



요(遼)



금(金)



원(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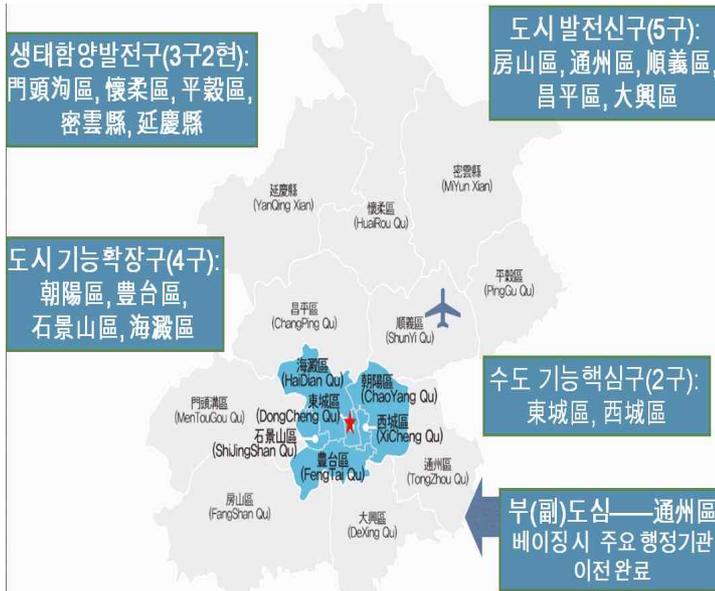
명(明)



청(淸)

<베이징 행정구역도>

<베이징 시를 이끄는 파워엘리트>



차이치 (蔡奇)
시위원회 서기

- * 2017년 5월 취임
- ☞ 푸젠성, 저장성에서 시 주석과 오래 근무한 경험
- ☞ 베이징 대리 시장('16.10)→ 시장('17.1)→ 서기('17.5), 7개월 만에 베이징 수장으로 초고속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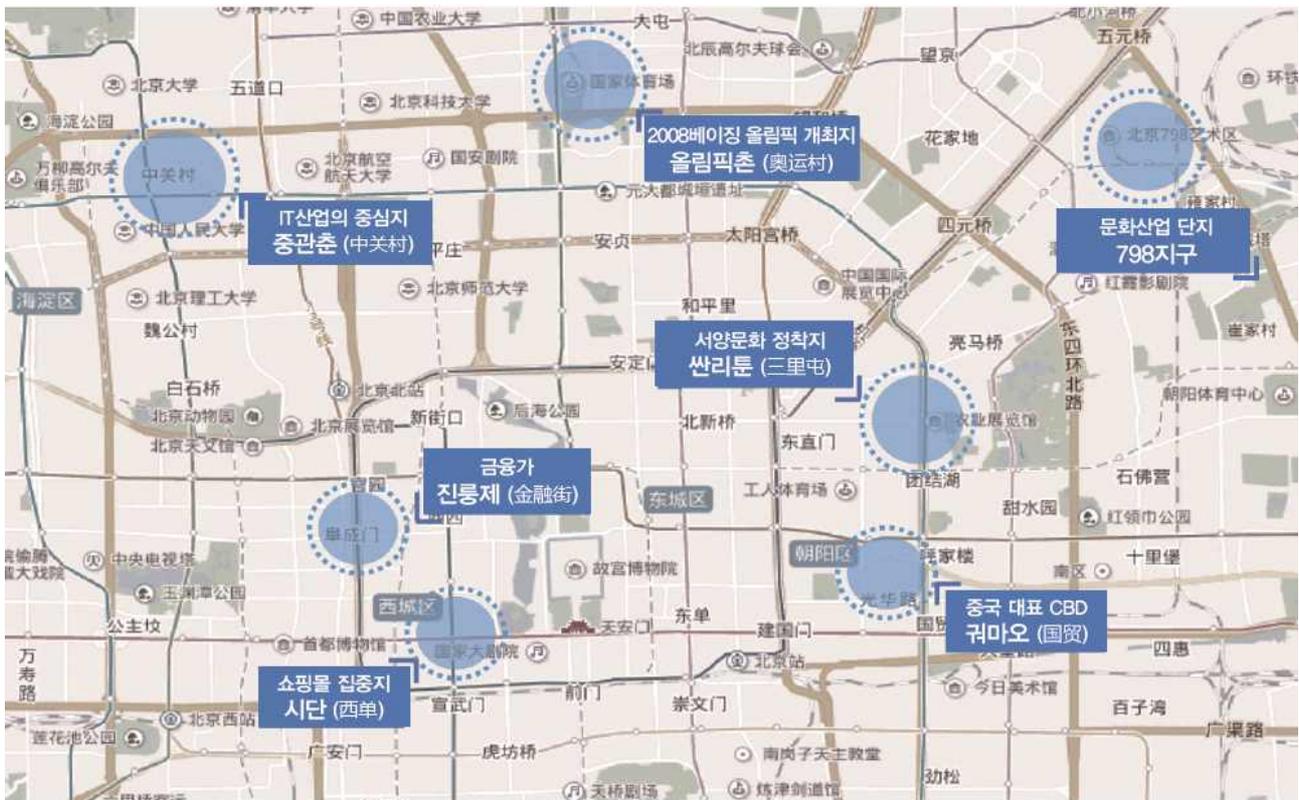
천닝 (陳寧)
시장

- * 2017년 5월 대리시장 취임, 2018년 1월 시장으로 임명
- ☞ 명문대 칭화대 총장을 거쳐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을 역임하며 '스모그와의 전쟁'을 진두지휘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선명한 상권 형성

<베이징 대표 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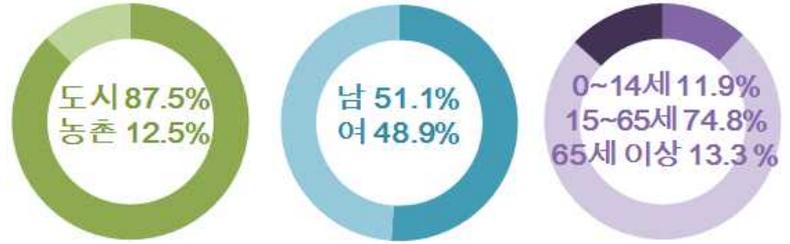
2. 통계로 보는 베이징경제

2020 4대 1선도시 GDP 비교

순위	직할시	GDP (억 위안)
1	상하이	38,701
2	베이징	36,103
3	선전	27,670
4	광저우	25,019

자료원: 각 지방 통계국

최근 인구동향



* '20년 베이징시 상주인구 2,189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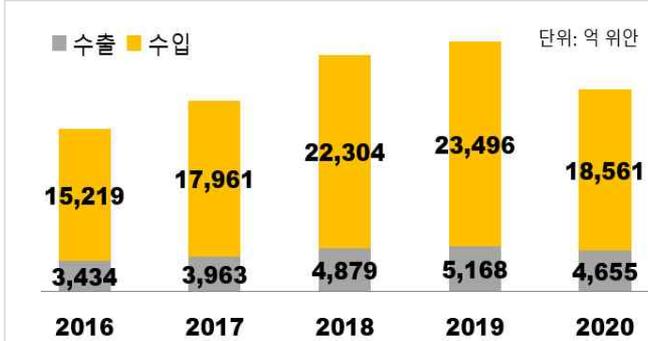
공업생산



소비시장규모(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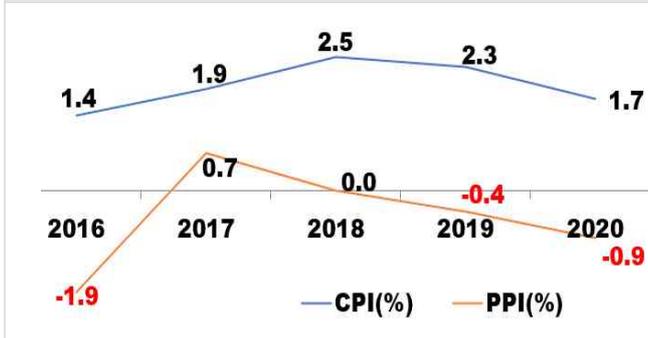
수출입



소득



CPI & PPI



미세먼지(PM 2.5)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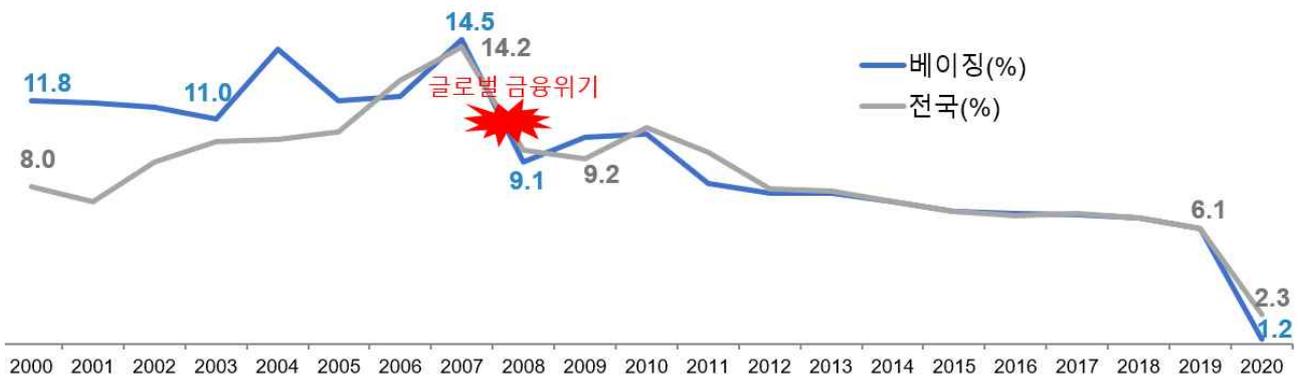


자료원: 베이징시통계국

3. 경제동향

- 높은 방역 장벽, 코로나 충격이 베이징의 주요 산업인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 전국 평균 하회
 - 베이징 경제성장률 2011년 이후 10% 하회, 2015년부터는 7% 미만, 코로나 이전 전국 평균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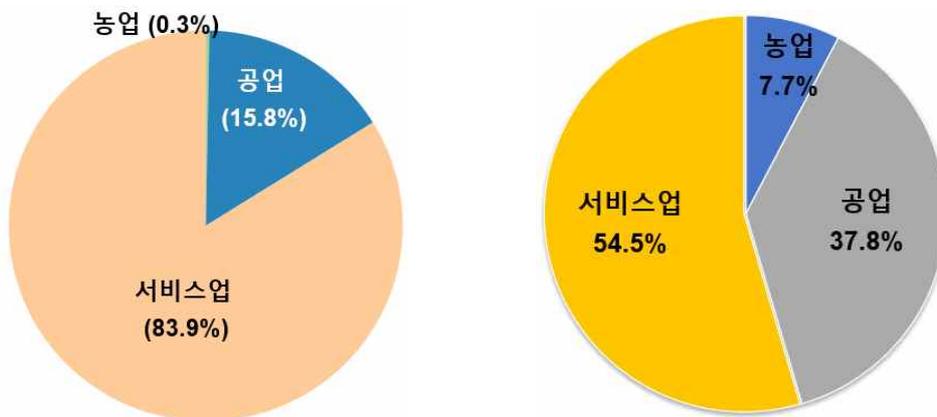
〈베이징시 & 전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원: 베이징시통계국

- 서비스산업 비중 전국 1위,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구도 뚜렷
 - 2020년 베이징의 서비스산업 비중 80% 상회 (* 상하이 73%)
 - 서비스무역총액 1조 위안 이상의 유일한 '서비스산업 개방 주도 시범도시' (2015.5월)
 - 금융, 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의 베이징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50% 이상

〈베이징(좌)과 중국(우) 경제구조 비교〉



자료원: 베이징시통계국, 국가통계국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테스트 베드

- 중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 첫 시범도시('15년 5월), 개방수준이 전국 최고
- 6대 중점 분야 지정(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의료 등)



- 승안신구 및 징진지 일체화 전략 추진으로 베이징 非수도기능 분산 가속화



“천년대계”의 미래도시, 승안신구(雄安新區)

- 선전 경제특구, 상하이 푸둥신구에 이은 최고 지도자가 지정한 특구이자 수도권 건설 프로젝트인 징진지의 핵심(17.4.1.)
- 친환경·스마트·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키워드를 활용해 건설되는 최대 면적 2000km², 최대 인구 250만 명 규모의 신도시
- 베이징 非수도기능 분산과 더불어 대형 국유기업, 알리바바·바이두 등 인터넷 기업들 대거 진입

인구 1억의 도시권, 징진지(京津冀)

- 시진핑 주석에 의해 국가전략으로 채택('14년)된 중국 수도권 건설계획
- 베이징(京), 톈진(津), 허베이(冀)를 중국 북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
- 면적: 21만 6,000km², 인구: 1억1,000만 명
- 1시간 생활권 건설, 산업이전(베이징→허베이) 가속화 위해 교통망 구축 등 대대적 인프라 투자 진행 중
- 베이징의 전통산업기능을 허베이로 이전하여 인구과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통합 추진



4. 주요 산업

□ ICT

- 하이테크 산업이 베이징 GDP에 차지하는 비중 25.6% (2020년)
-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관춘(中關村)을 중심으로 IT와 전자산업이 발달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춘(中關村)

- 1980년대 전자상가에서 출발, '09년 이후 전자제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ICT 산업 클러스터 구축 착수
- 칭화대, 베이징대 등 80여개 대학기관, 400여개 다국적기업의 R&D센터, 120여개 국가급 엔지니어링센터, 중국과학원 등 80여개 국가연구기관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국 기술개혁을 견인
- 중관춘 SW 타운(1城) 및 지재권표준화 거리, 혁신창업 거리, 과학기술금융 거리(3街) 등 ‘1성 3가’ (1城3街) 건설
- 최근 중관춘은 전자상가에서 ‘혁신창업의 요람지’로 변모

〈중관춘의 과거(전자상가, 좌)와 현재(IT 산업 클러스터, 우)〉



- 1.6만개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 97개 유니콘(Unicorn) 기업 포진 (전국 1위)
- 2019년 중관춘내 하이테크기업 생산액 1조 위안 돌파 (베이징 GDP의 29.4%), 2020년 기업매출총액 7.2조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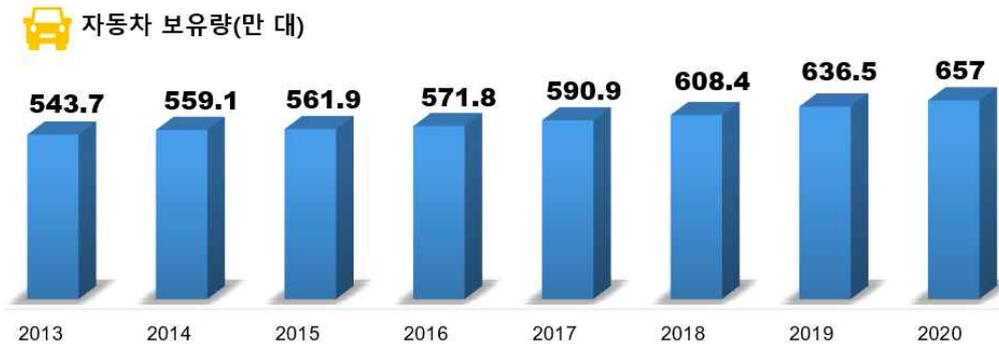
〈중관춘 창업거리〉



□ 자동차

- 중국 최대 자동차 보유도시, 2020년 보유량 650만 대 돌파

〈베이징시 자동차 보유량〉



자료원: 베이징시정부

- 베이징 2대 산업 (2020년 산업생산에서 18.7% 차지)
 - 중국 자동차시장 회복세 힘입어 2020년 자동차제조 산업증가치 5.7% 증가
 - 산업 클러스터는 동북부의 순이(順義)와 남부의 이좡(亦莊)경제개발구 (2020년 자동차 생산량 1.9%, 신에너지차 생산량 △13.9%)

□ 금융업

- 금융업은 베이징 GDP에서 최대 비중(19.8%) 차지 (2020년 기준)
 - 도시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7위 도시(2020.3월, Z/Yen)

중국 대표적 금융중심가_진룽제



- * 금융기관 위주로 금융중심구역 조성
- * 통신, 언론, IT, 보안 등 분야 서비스업과 금융관련 회계, 법률 등 전문업종 구비
- * 금융당국인 '일행양회(一行两会: 중앙은행, 은행보험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4대 국유상업은행, 3대정책성은행, AIIB, AFCA, 대형 증권·보험회사 본부 등 주요 금융기관 소재

- 2018년부터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산업 육성에 주력
 - 2022년말까지 5~10개 글로벌 핀테크 선도기업 육성, 3~5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

□ 문화·관광

- 중국 최대 문화산업 도시, 2020년 코로나 여파로 문화산업 마이너스 성장 (△7%)
 - 12.5%의 중국 국가급 문화수출중점기업 소재지 (37개)
 - 연간 매출 2천만 위안이상 문화기업 4천여개 사 포진, 연간 매출 합계 1조 위안 상회 (2018년 기준)

공장폐허에서 예술전당으로... '다산즈(大山子) 798 예술구'

- * 일련번호가 798인 전자제품공장 폐허에 2000년대 초반부터 예술가들이 모여들며 예술공간 조성, 현재 예술구에는 400여 개 화랑, 갤러리, 독특한 인테리어의 카페, 아트샵 등이 자리잡고 있음
- * '05년 중국 정부가 "철거"를 발표했다가 이듬해 '문화혁신산업특구'로 공식 지정됨
- * 중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예술특화지구이자 베이징의 문화아이콘으로 자리매김



- 중국 최대 관광도시,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방문 관광객 수, 관광업 수입 반토막
 - 관광객 수: 국내 1.84억 명 (△42.3%), 해외 34.1만 명 (△91%)
 - 관광업 수입: 2914억 위안 (△53.2%), 그중 위안화 2881억 위안 (△50.9%), 외화 4.8억 달러(△90.7%)

600살 자금성의 변신...자금성 굿즈	帝都의 서점은 핫플레이스...모범서국(模範書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의 IP(지식재산권) 자산을 바탕으로 '자금성 굿즈'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익 사업 전개 * '17년 자금성 굿즈 사업 매출 15억 위안 기록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7년 건립된 중화성공 회교회를 개조해 서점으로 오픈(2019.6월)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5. 한국-베이징 경제교류

- 베이징 對韓 수입, 연속 3년 하락에서 2018년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2019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20억 달러 하회
- * 한→베이징 수출 품목: 경질유/휘발유, 집적회로, 무선전화기, 기어박스 등
- * 베이징→한 수출 품목: 휘발유, 쌀, 방사성 원소, 경질유 등



자료원: GTA

□ 對베이징 투자

- 對베이징 투자: 5,086건으로 투자금액 기준 86억 1,611만 달러 (2020년 기준 누계)
 - 2020년 우리기업의 對 베이징 투자금액은 1억 2,851만 달러 (투자금액 기준)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소매와 건설업 (2020년 기준 누계)
 - 2020년은 주로 도소매, 제조업과 부동산업

〈한국기업 대 베이징 주요 투자 업종(2020년 기준)〉

(단위: 천불/%)

순위	업종	(누계)투자금액	(투자금액)비중	신고건수	(신고건수)비중
1	제조업	3,936,814	45.7	1,983	38.9
2	금융보험업	1,994,173	23.1	178	3.5
3	부동산업	1,024,762	11.9	79	1.6
4	도소매	738,839	8.6	726	14.3
5	건설업	222,396	2.3	139	2.7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6. 주요 명소

	<p>만리장성(萬裏長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의 성벽, 길이 단위로 1만 2,000화리(華里)(6,000km)에 달한다 하여 만리장성이라 부름 * 춘추전국시대 열국들이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구축했던 것을 진시황이 천하 통일 후 서로 연결하여 완성
	<p>베이징의 중심 천안문(天安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33.7m의 장대한 성문으로 명대 1417년에 건축 (당시는 승천문(承天門)으로 불렸음) * 청나라 때 전화로 소실된 후 1651년 재건되어 개명 *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성루에서 신(新)중국 건국 선언
	<p>고궁(故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960m, 동서 750m의 왕조 유적, 1420년 건축, 700여 개 건축물과 9,000여 개 방이 있음 *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까지 명·청대 황제 24명 거주지
	<p>왕부정(王府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명동', 베이징의 중심 변화가 * 고궁 동쪽의 왕부정 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베이징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로 500여 년의 역사를 지님
	<p>이화원(頤和園)</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대의 황실정원 1764년 건륭제(乾隆帝) 때 건축된 청조의 별궁, 원래 칭이위엔(清漪園)이라 불렸음 * 1860년 아편전쟁 때 황폐해진 것을 1888년 서태후(西太后)가 재건하면서 오늘 날 이화원의 이름을 갖게 됨
	<p>경산공원(景山公園)</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무문(神武門) 정면에 있는 공원으로 시중심부에 위치 * 공원 남쪽에 있는 경산은 해발 108m의 고지로서, 정상에 세워진 완춘팅(萬春亭)에서는 고궁의 전체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 등산루에는 명나라의 황제인 승정제(崇禎帝)가 목을 맨 나무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의 것은 새로 심은 나무임
	<p>북해공원(北海公園)</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궁 서북쪽에 위치, 공원의 반 이상이 연못 * 베이하이(北海) 중간에 위치한 중화다오(瓊華島)에는 티베트 양식의 흰 불탑이, 공원 북서쪽에는 아름다운 구룡벽(九龍壁) 등이 있음
	<p>십찰해(什刹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찰해'란 10개의 사찰이 있는 호수라는 뜻, 현재는 광화사(廣化寺)란 사찰 하나만 남아 있음 * 주변에는 민가, 왕푸(王府; 청나라 왕족의 저택), 유명인의 옛 저택, 중국의 전통 골목인 '후통'(胡同)이 등이 잘 보존돼 있음

	<p>천단공원(天壇公園)</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던 283만㎡의 제단 * 명대 영락제가 오곡풍양을 하늘에 빌기 위하여 1420년에 건설 * 기년전(祈年殿)은 높이 38m, 지름 32.7m의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원형 목조 건축물, 들보·마룻대·못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건축 방법
	<p>옹화궁(雍和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6만 6,400㎡의 티베트 불교의 사원군, 한, 만주, 몽고, 티베트의 건축 양식이 융합되어 독특한 분위기 연출 * 최남부에는 유리로 된 누각이 있으며, 북쪽 만복각(萬福閣)에는 세계 최대의 미륵 보살상이 있음
	<p>명13릉(明十三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나라 역대 황제의 능묘군, 제 3대 영락제(永樂帝)부터 16대까지 13명의 명 황제의 능이 조성되어 있음 * 현재 정릉(定陵), 장릉(長陵), 소릉(昭陵)의 3릉 및 묘참도(墓參道)가 공개돼 있음
	<p>전문대가(前門大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옛 부자상인들의 거리, 천안문 광장 남쪽에 위치한 정양문(正陽門)을 마주보고 있음 * 명대 번성했던 상인의 거리로 중간에 대책란가(大柵欄街)와 이어져 있음 * 서쪽으로 가다보면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국의 골동품 거리 '유리창(琉璃廠)'이 있음
	<p>베이징팡(北京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과 유행을 결합한 창구 플랫폼, 베이징 문화의 신 랜드마크 * 베이징 옛성 풍모를 재현한 건축물과 전위적인 전시관, 서점이 자리하고 있음 * 후통을 쇼핑몰 형태로 살려내고 내부는 세계 최신의 유행 공간으로 채워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

베이징 후통

- * 후통(胡同)은 '우물'의 뜻을 지닌 몽고어(Hottong)의 발음에서 기원한 고유명사
- * 베이징 옛 성내를 중심으로 산재한 벽돌로 만든 단층집 밀집지역의 골목을 가리키는데 전통가옥 '쓰허위안(四合院)'과 일반 서민들이 옛 거주모습을 구현
- * 유명한 관광지 허우하이(後海)를 중심으로 후통을 관광 상품화 한 투어가 진행중



V.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 도로

- 베이징 도로망은 2환~6환, 4각형 순환망과 창안가(長安街)로 등 도시내부의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성



□ 시내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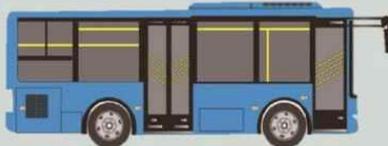
택시 出租车

기본요금:13위안 (3km기준)
3km초과 후,
1km당 2.3위안의씩 가산



버스 公交车

기본요금:2위안
10km 초과 후,
5km마다 1위안씩 가산



지하철 地铁

기본요금:3위안
구간별로 추가요금 발생
(Min 3위안~Max 10위안)
* 공항-도심간 고속철도로
30분내 베이징시내 진입 가능



□ 인터넷+중국

☞ 경제발전생태계 창조전략 ‘인터넷 플러스’의 추진으로 인터넷과 전(全)산업 융합 중
- 중국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 모바일결제 앱으로 결제, 음식배달 앱으로 식사 주문, 콜 택시앱이나 공유자전거 앱으로 외출, 여행 앱으로 비행기 티켓과 호텔을 예약

타오바오(淘寶): 무엇이든 구매 가능



현금 없이 쇼핑 가능,
QR 코드로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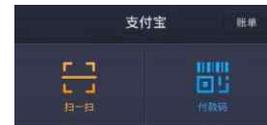


종업원 부를 필요 없어,
2D Fire로 주문 및 결제



지불, 계좌이체, 영화티켓 및 전기요금은 알리페이(支付寶)로

请打开支付宝钱包进行转账...



배고프면 “음식배달 앱”
어려머



배차 서비스 앱
디디추싱(滴滴出行)



차 막힐 땐 공유자전거 이용



- (코로나 방역) 위챗, 알리페이 등 앱의 ‘베이징건강보(北京健康寶)’ 통해 ‘이상 없음’ 확인
 - 마스크 착용, 체온 검사, ‘건강보’ 상 ‘이상 없음(未見異常)’ 확인해야만 실내 공공장소 진입 허가



- (모바일 결제) 온라인으로 개인 소매와 기업 도매거래 결제, 오프라인 쇼핑물이나 편의점 이용, 공공시설 비용(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료 등) 지불, 택시비 지불 등 생활 전반의 시설 및 서비스 결제 가능
 - 은행 계좌, 신용카드를 연동시킴으로 모바일 결제 앱과 은행계좌 간 현금 이동이 가능
 - * 중국 신용카드와 중국 휴대전화 번호가 있어야 사용 가능
 - 중국인 5명 중 3명은 알리페이 사용, 위챗페이의 사용자 수는 10억 명에 달함.

○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 (滴滴出行)



-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 및 개인 자가용 차량을 배차해 주는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 중국 400여개 도시에서 하루에 2,000만 건 이상의 예약이 이뤄짐
- 사전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온라인결제(알리바바, 위챗페이)로 결제

사용방법

1. 전화번호를 통해 인증 받기.
2. 출발지 및 목적지 주소 입력.
3. 택시 호출.
4. 목적지 도착 후, 온라인으로 결제.



☐ 전화

○ 국제 전화

- 중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거는 방법:

1. 수신자 부담 콜렉트콜 (108821(한국통신), 108828(데이콤))

1	외선번호 (대부분 9번) 누르기
2	108821(한국통신) 또는 108828(데이콤)으로 전화걸기
3	한국어 안내에 따라 자동 콜렉트콜 서비스 번호 입력! * 108821은 4번, 108828은 1번)
4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입력 후 '#'누르기
예시	KOTRA 서울 본사 (02-3460-7174) 로 전화 시 108821/108828- 4/1-02-3469-7174를 입력 후 통화

2. 발신자 부담 전화

1	"0082" (한국국가번호) 누르기
2	0082 + 지역번호 (앞에 '0'생략) + 전화번호 입력!
예시	KOTRA 서울 본사 (02-3460-7174) 로 전화 시 0082-2-3469-7174를 입력 후 통화

☐ 모바일 메신저



○ 카카오톡

- 중국 현지에서 잦은 접속 장애, 출국 전 VPN 앱 다운 권장
- VPN앱을 설치하여 IP우회를 통하여야만 비교적 원활한 사용 가능



○ 위챗 (Wechat)

- 원활한 음성·영상통화 가능
- 중국 현지 생활에 꼭 필요한 메신저 (사용인구: 12억)
- 은행카드를 위챗페이와 연동시키면 중국 전역에서 편리한 결제 가능

□ 환율 및 환전

- 환율: 1위안=182.11원(*2021.9.26일 매매기준율 적용)
 - 환전은 공항, 은행, 호텔 내에서 가능. 출국 전 환전 권장
 - 중국은 위조지폐가 많으므로 암거래 상을 통한 환전 주의요망
 - * 위조지폐 판별법: 지폐의 중간 부분의 은색 '안전선'에 화폐단위(RMB100)가 쓰여 있는지 확인.

〈위조지폐 판별법〉



- 신용카드: 일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점도 있어 현금 지참이 필수
 - UnionPay(중국은행) 중국에서 이용가능, 해외 VISA와 MASTER 카드는 상점에 따라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
 - 해외발행 UnionPay 카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당량의 현금은 보유필수

□ 외환소지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이 미화 5,000불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중국 출입국 시는 반드시 해당지역 해관에 신고해야 함.
 - 소지 금액이 미화 5,000~10,000불 이상일 경우, 출국 시 사전에 여권 및 사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휴대증" 발급 필요

□ 전압 (220V, 50Hz)

〈중국 콘센트 및 멀티 어댑터 사진〉



- 출장 시, 필요의 의해서 멀티 어댑터의 소지 건의
- 일반적으로 한국 전기코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나, 외진곳이나 시내가 아닌 지역에는 3구를 사용하는 곳이 많음.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아직도 3구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음.

□ 호텔

- 수도 베이징의 호텔은 일반적으로 1박에 약 100~200달러 정도이며 사전 예약 필요.
- 중국 현지 대부분의 숙박업소에서 투숙 시, 하루치 숙박비와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체크아웃 후 반환됨.
- 공항에서 호텔로 찾아갈 때 증문으로 된 호텔 주소를 필기해 갈 것을 추천
- 팁문화 없음

□ 긴급전화

접수내용	전화번호	관련기관
범죄신고	110	중국공안국
화재·구조·재난신고	119	중국대륙소방센터
응급의료·병원 정보·구급	120	중국대륙구급센터
교통사고신고	122	중국공안국 교통관리부서

* 베이징 범죄신고 긴급전화 110은 영어, 독일어, 한국어, 일어 서비스 제공

VI. 무역관 오시는 방법

□ 베이징무역관 오시는 길(베이징수도공항 → 무역관)



○ (택시)



택시 승강장에서 탑승.

- 승차 위치:

T1(1층 1 번 입구 중간 차도), T2(1층 5~9 번 입구 밖), T3(터미널 지시판 참조)

- 무역관 건물까지 요금은 평균 50~60위안 (단, 택시요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5~10위안 추가)



○ (공항버스)



- 매표소 위치:

T1(1층7번 출구 안), T2(1층11번 출구 밖), T3(1층7 혹은 9 번 출구 밖)

- 매표소에서 14번 왕징(望京; Wang Jing)행 버스표 구매 후, 버스에 탑승. 요금은 노선에 상관없이 1인당 20위안

- 버스의 두 번째 정류장인 광쑤베이따제(廣順北大街; Guang Shun Bei Da Jie)에서 하차, 무역관 건물까지 택시로 약 7분(약 2.7km) 비용은 13원 소요

- 운행시간 07:30~21:00, 배차시간 30분



○ (지하철)



- 지하철 공항라인은 동즈먼(东直门), 산위엔차오(三元桥), T3, T2 4개의 역이 운영되고 있음.
- 운영시간: T2 공항: 06:35-23:40, T3 공항: 06:20-23:20
- 배차간격: 1차/10분
- 승차위치: T2: 2호 주차 타워 지하 2층, T3: 3호 주차 타워 2층
- 요금: 편도: 25위안/인
- 산위엔차오 역에서 내린 후, 무역관 건물까지 택시로 약 16분(약 6.9km) 비용은 22원 소요
- 총 76분 소요

□ 무역관 약도 (아래 지도에서 “A” 표시 부분)



- 주소: 北京市朝陽區大望京科技商務園區宏泰東街浦項中心 A棟 28~29層
- 전화: (86-10) 6410-6162 ○ 팩스: (86-10) 6505-2310

Ⅶ. 현지 유관기관 및 한식당 안내

□ 주중 한국대사관

- 주소: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100600)
- 전화/팩스: (86-10) 8531-0700 / (86-10) 8531-0726
- 근무시간: 9~12시, 13시~17시
- 근무시간 외: (86-10) 8531-0704, 핸드폰: (86) 136-0103-0178

□ 주중 한국영사관

- 주소: 北京市 · 朝陽區 · 亮馬橋 · 北小街7號
- 전화/팩스: (86-10) 8532-0404/ (86-10) 6532-3891

□ 주요 항공사

- 대한항공: 400-658-8888/ 朝陽區 霄雲路 38號 現代汽車大廈9層
- 아시아나: 400-650-8000 /朝陽區 亮馬橋路 燕莎中心 辦公樓1層

□ 주중 한국 문화원

- 사이트 주소: <http://c.kocenter.cn/>
- 주소: 北京市朝阳区光华路光华西里一号
- 전화/팩스: TEL:(86-10)6501-6566 FAX:(86-10)6501-6966

□ 주요 식당 리스트

	업체명	주 메뉴	전화번호	별점	1인당 평균소비
한식	불티(火牛烤肉)	고기, 한식	010-6477-1881	★★★★☆	113 위안
	본가(本家)(왕징점)	우삼겹, 떡갈비	010-84730101	★★★★☆	142위안
	동보성(东宝城)(왕징점)	짜장면	010-84763039	★★★★★	82위안
	자하문(紫霞門)(왕징점)	갈비	010-84782323	★★★★☆	164위안
	전주집(全州屋)(왕징점)	콩나물국밥	010-64724084	★★★★☆	80위안
	미도파(美都波)(왕징점)	고기	010-64718778	★★★★☆	148위안
	참이맛감자탕 (真利味脊骨土豆湯)(왕징점)	감자탕	010-64390130	★★★★☆	100위안
	화로화(火炉火)(왕징점)	고기	010-64779588	★★★★☆	107위안
	탄탄대로(坦坦大炉)(왕징점)	고기, 한식	010-64746162	★★★★★	148위안
중식	쓰지민푸(四季民福)(왕징점)	베이징덕	010-64733858	★★★★☆	145위안
	뤄차찬팅(绿茶餐厅)(왕징점)	장수, 절강성 중식요리	010-88997388	★★★★☆	79위안
	절강요리(香浙匯)	절강요리	010-84422877	★★★★☆	167위안
	하이디라오(海底捞)(왕징점)	샤브샤브	010-53269468	★★★★★	150위안
	찐딩헨(金鼎軒)(왕징점)	딤섬	010-64701696	★★★★☆	72위안
	동래순(東來順)(왕징점)	신선로 샤브샤브	010-59780072	★★★★★	152위안

※ 이상 '별점' 및 '1인당 평균소비'는 '大众点评'에 의거

○ (맛집찾기) 따종디엔핑(大众点评)*과 같은 맛집찾기 어플을 활용

- * '대중'이라는 뜻의 따종(大众)과 '평가하다'라는 뜻의 디엔핑(点评)이 합쳐진 이름으로, 중국의 가장 큰 소비자 평가 소셜 플랫폼 중 하나
- 음식, 호텔, 영화부터 사진관, 육아,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음식점을 많이 검색하며, 한국 음식점들도 많이 등록돼 있음.

1. 메인화면 왼쪽에 위치한 메뉴얼의 첫 번째



2. 화면의 왼쪽에 상권(商区), 요리 계통(菜系), 랜드마크(地标), 분위기(氛围)등 상술한 4개의 기준으로분류

* 예시:

1. 상권(商区)의 왕징(望京) 클릭 2. 분류(分类)의 사천요리(川菜)클릭



3. 사천요리 전문 음식점 리스트가 나옴



4. 원하는 음식점을 클릭하면 추천 메뉴 및 사진 리뷰가 나옴



- * 추천 맛집 정보, 일인당 평균소비, 별점, 리뷰, 할인 쿠폰 등 많은 콘텐츠 포함
- * 일반 지불방식이 아닌 따종디엔핑을 통해 지불할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도 함

W+
별점 **9.0**

W+川味中国菜

787 条点评 | 人均 ¥68 **일인 평균소비**

川菜 | 望京 宏泰东街望京东园七区8-29/30

음식 분류 **주소**

음식점 이름

맛 평점 **9.0** 분위기 평점 **9.0** 서비스 평점 **9.0**

할인쿠폰 团购: W+川味中国菜! 仅售88元! 最高价值158元的双... **更多2单团购** >

배달 서비스 外送: 本店支持在线下单, 足不出户, 外送到家!

Ⅷ. 무역관 직원 연락처

☐ 대표전화 : (86-10) 6410-6162

☐ FAX : (86-10) 6505-2310

소속	성명/직위	사무실 내선번호
중국지역본부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	(86-10) 6410-6162 (Ext.78)
	강민주 차장	(86-10) 6410-6162 (Ext.56)
	박영훈 차장	(86-10) 6410-6162 (Ext.22)
베이징 IT 지원센터	신진용 센터장	(86-10) 6410-6162 (Ext.33)
베이징 BI	정동호 팀장	(86-10) 6410-6162 (Ext.40)
베이징무역관	구경희 부관장	(86-10) 6410-6162 (Ext.24)
	이수민 차장	(86-10) 6410-6162 (Ext.16)
	윤보라 차장	(86-10) 6410-6162 (Ext.19)
	도승주 과장	(86-10) 6410-6162 (Ext.17)
	이정무 과장	(86-10) 6410-6162 (Ext.26)

【끝】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